출세의 문과 별세의 문

(에스겔 26:1~21)

1.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3.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4.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5.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 거리가 될 것이요
6.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출세의 문과 별세의 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출세의 문과 별세의 문'

제목에서 '별세의 문'이라고 하면 이미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장로교 소속 목사님으로써 강남과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의 창립자로써 '별세신앙'을 주장하시면서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별세의 문'은 바로 별세신앙과 일치하는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75억 명에게는 항상 두 개의 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출세의 문과 별세의 문입니다. 출세의 문은 쉽게 말해 등용문(登龍門)이고 별세의 문은 천국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에서 말하는 용문(龍門)이란 황하 강 상류에 있는 협곡의 이름입니다. 이 협곡은 물살이 강해서 아무리 크고 힘센 물고기도 여간해서는 거슬러 오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협곡 위로 올라간 물고기는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등(登)자를 써서 등용문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등용문이라는 말은 입신출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귀로 쓰여 왔습니다. 꼭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더라도 요샛말로 뜬 연예인들이나 인물들이 등용문을 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소규모 연극단을 전전하던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드라마의 단역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연출자들에게 인상적으로 각인이 되어서 이

윽고 주연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연기자로써 용문에 올라 출세하게 된 셈입니다. 연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물론이고 요새는 목사님들에게까지 이런 등용문이 적용되는 잘못된 현상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스타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계되어서 용문점액(龍門點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점액이란 이마에 난 상처를 의미합니다. 용문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바위에 부딪혀 이마에 상처를 입고 떠내려가게 된 실패자나 낙오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보자면 40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등용문의 사람이 되느냐 점액의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다만 등용문에 오르는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이기에 세상은 가는 곳마다 용문점액의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출세의 문을 통과하려했지만 실패해서 이마에 낙오자나 실패자라는 상처만 달고 그저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오셔서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빌립으로부터 나다나엘을 소개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등용문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지불하며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 계곡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엄청난 과정을 통과하기 나름입니다. 돈이 많은 재벌이 되고 싶어도 엄청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신 천국문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듯이 안방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듯이 거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선민은 출세의 문을 향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출세의 문인 등용문을 오르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고리도 잡지 못한 채 낙오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이러한 출세의 문을 오르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실에서 안방으로 이동하듯이 별세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열한째 해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해인 BC.597년을 기준으로 하여 11년 뒤인 BC.586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해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600km나 떨어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선민들을 향해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민족의 멸망에 대한 예언 중에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00km정도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섬들 위에 건설된 나라로써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표현된 페니키아인들의 나라였는데 시돈과 함께 유명하였습니다. 두로는 작은 도시국가였음에

도 불구하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들을 대상으로 해상교역을 장악하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근동지역사람들의 인식 범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에 두로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중세에는 이탈리아의 베니스가 해상무역으로 유명했지만, 두로는 고대의 베니스라 불릴 정도로 해상무역을 통해 부와 번영을 축적했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두로는 오래전부터 선민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준 것이 두로의 왕 히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윗 시절부터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도 근처의 암몬이나 모압과 에돔 같은 이방민족과는 다르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반 바벨론 정책을 통해 뜻을 함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선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본문 2절에 나타납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민의 문'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두로 사람들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왜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주석에서는 이를 예루살렘의 지형적 특징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을 연결하는 육상교역로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으로 표현하기에는 이미 두로가 가지고 있던 해상교역로의 힘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비해 내륙의 아라비아 지방에는 교역에 유리한 강대한 도시들이 많지 않았고, 애굽과의 교역도 해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륙 도시와의 교류도 에돔 암몬 모압 등의 나라를 지나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굳이 이들이 예루살렘을 적대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로가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일컬은 것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아브라함 시절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또 26장 4절을 보면 이삭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도 하셨습니다. 27장 29절에서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선민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미 만민의 문으로써 살아가게 될 선민의 특성이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3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 봉헌식의 기도를 올릴 때에도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즉 만민이 주

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또한 56장 7절에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하였고 미가서에서도 만민사상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단순히 지리적 요충지로서가 아닌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만민의 문으로 불리었던 것입니다. 긴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두로 또한 선민들이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절에서 두로가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고 기뻐한 것은 선민의 신앙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전무 한 상태에서 생겨난 욕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상업적으로 더욱 번성할 것을 기대하며 자신들이야 말로 진정한 만민의 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스페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를 접한 모든 나라들과 교역을 하던 두로의 자만심에서 비롯된 생각이었습니다.

두로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야 말로 부자가 되는 길의 입구로써 만민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를 만민의 문이라 칭하던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으니 명실공히 두로만이 만민의 문이 되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로에게도 멸망이 임할 것이 예언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그 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는 주변국들이 다 기뻐했는데 두로가 망하게 되자 바닷가의 왕들이 다 슬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나라의 왕들은 두로의 교역로를 통해 부를 축적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두로와 예루살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만민의 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은 본래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의 입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민의 문에는 구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만민은 각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마음을 보내야 할 문이 바로 만민의 문으로 상징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에스겔이 처음 부름을 받으면서 환상으로 보았던 천국입니다. 이 지구 위에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이 천국문을 지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듯이 일상적으로 마음이 천국을 들락거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던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나는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진 그리스 아테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테네에 사는 나도 마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몸은 아테네에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기에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마음에는 사업도 들어오고 가족도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본래 하나님만이 계셔야 될 마음에 다른 대상들이 들어왔으니 더러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번제단에 드려지는 어린양의 죽음과 동일시해서 깨끗함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현 할 때에 마음은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등용문을 오르듯이 일평생 수련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문인 예루살렘 성전은 안방 문처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문이어야 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만민에게 알리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자가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민들이 이 별세의 문을 마음에 다는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공사는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는 마음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였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성전을 떠올리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목적을 잃은 예루살렘은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성전은 훼파되고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갖지 못했던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자신들이야말로 만민의 문이 될 수 있다고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온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실제로 돈을 많이 갖게 되는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문을 찾게 됩니다. 두로는 이러한 문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천국을 드나들게 하는 별세의 문이었다면, 두로가 자처하고 싶어 했던 만민의 문은 출세의 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두로가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성공이나 인기를 위한 출세의 문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출세의 문은 지상에서 미래를 향하게 하는 문인 반면에, 천국의 문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과는 구분된 천국을 안방처럼 드나들게 하는 문입니다. 문제는 출세의 문을 가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문점액의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하지만 바위에 이마가 부딪혀서 깨지고 실패하여 낙오하게 됩니다. 75억 명이 다 돈 벌기를 소원하지만 협곡을 지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음은 높은 사람이라고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돈이 많다고 해서 배제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죄인의 친구로 불리셨던 것처럼 용문점액의 실패를 겪은 이들에게 복음은 더욱 필요합니다. 부자나 노숙자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고, 이들이 가진 재산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삶의 현장에 별세의 문을 다는 인테리어 작업과도 같습니다. 이 작업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성전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는 십자가 사건에서 성전의 구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세의 문에서 떨어져 문이 없어

진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그리워하고 떠올릴 수 있는 천국문을 달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인테리어 작업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이 문달기라고 합니다. 문틀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문을 다는 작업은 가장 쉽습니다. 마음에서 십자가를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선민은 이렇게 마음에 천국문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천국을 들락거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구분되는 더 나은 미래가 아닙니다. 그 대상은 건강이나 돈 일수도 있고 취직이나 승진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면이든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발전된 상황으로 가기 위한 문을 찾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통과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로가 바로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민이 통과하고 싶어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문은 잘못된 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별세의 문입니다. 선민들이 마음에서 성전을 생각해야만 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이 별세의 문인 천국문 인테리어 작업을 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출세의 등용문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선민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고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등용문이 아닌 천국문입니다. 천국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할 곳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미래가 아닌 절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문은 마음의 인테리어 작업을 통해 일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문만 만들면 들어갈 수 있는 벽으로 막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이 더 나아지기만을 바라며 두로와 같이 출세의 문을 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음에 천국문을 달면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부터가 바뀝니다. 똑같이 천국문을 마음에 단 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천국문 인테리어 작업을 가르쳐주기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물질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같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신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거실에 있다가 안방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먼저 안방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있는 자리에 등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별세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현실임을 단호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급박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묶여있는 한 마음을 천국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문지방에 양

다리를 걸친 상태를 방에 들어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롯이 가족들을 이끌고 소돔을 탈출했을 때에 아내는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시선을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눈을 떼는 순간 당장이라도 망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문을 통과한다면 이 땅의 급박한 현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단호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안방에서 거실을 들어갈 때에 주저함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등지고 별세의 문을 지나 천국에 마음을 보낼 때에도 주저함 없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애처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삶은 하나님의 활동 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삶이 힘들기 때문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욕하기 때문도 아니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천국문 인테리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천국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한 싸움입니다. 마음에 천국문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십자가를 통해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신 모습이 세상에 대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단호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에서 천국문 인테리어 작업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천국문 인테리어 작업이 이루어짐으로 거실에서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듯이 단호하게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최선의 삶이 진행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떤 현장에서든 별세의 문인 천국문 인테리어 작업을 하여서 마음이 과감하고 단호하게 세상에 등을 돌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